

## 제3주 제

# 홍성군 지역농업 현황과 발전방안

---

정 기 수

((주)지역농업네트워크 실장)

## 홍성군 지역농업 현황과 발전방안

## 1. 국내 농업환경과 농정의 변화

### 1) 국내 농업환경 변화

#### (1) 과잉생산단계의 진입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특히 UR타결 이후 집중적인 투자로 농업생산기반 및 생산력은 획기적으로 증대

○쌀의 경우 대형농기계의 급속한 확대에 의한 전반적인 조업율의 감소와 WTO에 따른 최소시장접근, 1인당 쌀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과잉현상이 유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농작물이 생산과잉단계에 진입하여 농성농업의 주요 소득원에 타격을 줌.

#### (2) 산지간 경쟁의 격화

○기존의 주산지과 함께 소득작물로 전환하는 지역이 늘어나 신규 주산지가 형성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작목간 이동장벽이 낮아지고, 기후적 제약도 약해지고 있어 주산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음.

○과수와 채소의 경우는 식량작물의 상대소득 감소로 인해 논이 밭으로 전환되면서 산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 이런 속에서 지역별로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3) 농산물 소비구조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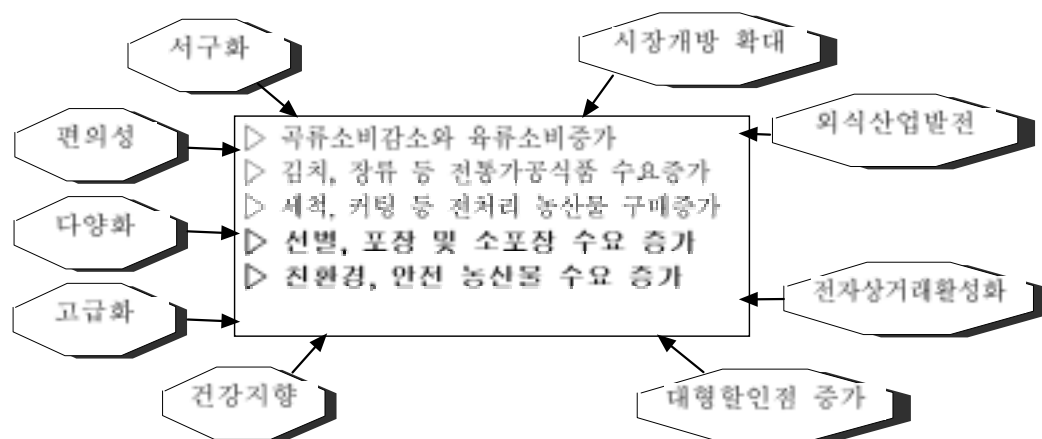
○소득증대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구매행태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리식품 및 세척농산물의 수요가 늘고 대형할인매장 등 원스톱 쇼핑의 점유율이 늘고 있음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과실의 출하시기 확대와 육가공품의 소비증대, 양채류의 소비증대가 나타남

○소득수준이 높아져 맛과 영양, 안전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충족시켜주는 고급농산물의 생산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그림 1> 소비자 선호 및 시장여건 변화와 농산물 소비행태의 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02』 p.245

#### (4) 친환경 안전농산물 수요의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광우병, 농약과 방부제가 첨가된 수입 농산물,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우려 심리로 인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

○소비자들은 국산농산물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평균 50% 이상의 가격격차도 감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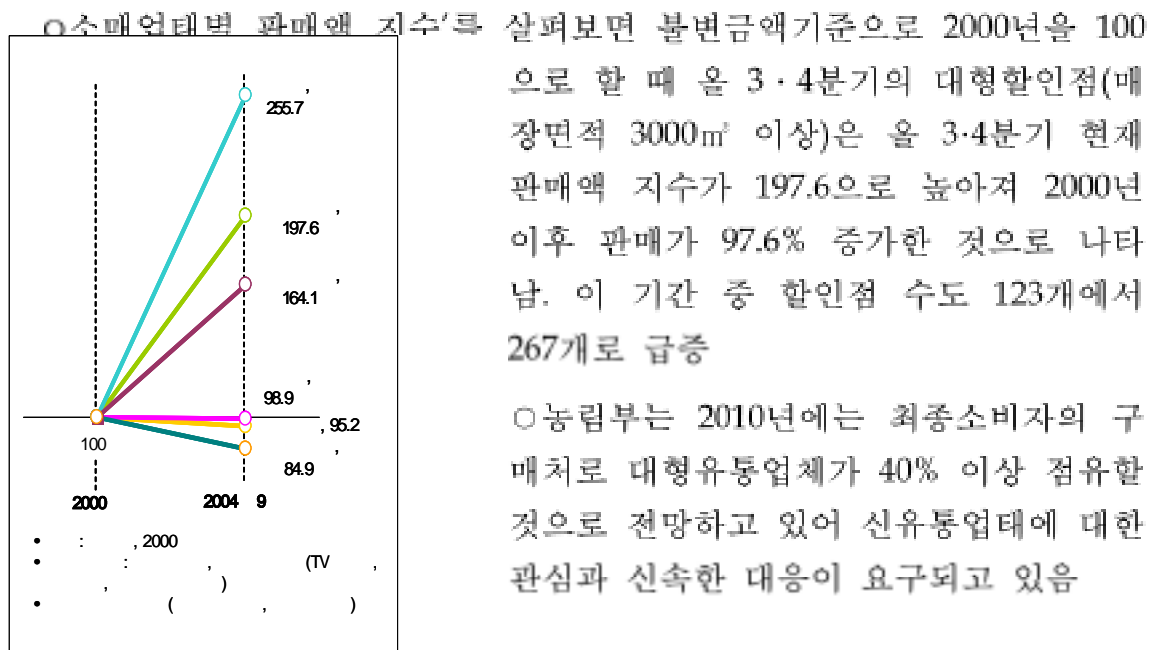
#### (5) 유통경로의 다양화와 신유통업태의 약진

○가락도매시장은 지방도매시장의 신설과 직거래의 확대에 의해 물량 및 거래금액에서 점차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

○농산물 전자상거래시장은 초기 단계이지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직거래물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할인점을 비롯한 신유통업체의 증가는 급속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어 98년 매출액 4조9,738억원 규모였던 것이 01년에는 13조3천억원으로 늘어났고, 04년에는 26조7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 점포수도 각 업체별로 50~70개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매출 증대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

## <그림 2> 소매업체별 판매액지수



○농림부는 2010년에는 최종소비자의 구매처로 대형유통업체가 40% 이상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신유통업체에 대한 관심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6) 농업노동력의 취약화와 대규모

### 농가의 경영악화

○젊은 층의 농업 신규취업의 급감과 노령화로 인해 농업노동력은 고령화·부녀화 되는 등 취약화가 계속되고 있음.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50세 이상의 고령 농가가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도 39%를 차지함.

○부녀노동력의 노동점유율도 51%로 부녀노동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이는 신규기술 습득능력의 하락과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한 대응력

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줌

○IMF이후 영농비용 가중, 농산물 수입개방,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하락, 농가부채 증가 등으로 농가경제, 특히 대규모농가의 경영이 악화되었음.

○200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영규모가 클수록 농업투자 확대로 부채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형태별로는 축산이 평균 4천만원 이상으로, 논벼 2천만원, 채소 3천만원보다 부채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40대 농가부채가 평균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경영불안정에 직면할 위험이 높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도 2000년 농산물가격하락으로 단기지급능력 부족농가의 비중이 40.5% 이르고 특히 1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농가의 경우 그 비율이 66.0%에 이르는 등 대규모 농가의 경영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

## 2) 중앙농정의 변화

### (1) 중앙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중앙정부 농정은 농산물 개방의 확대와 소비지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존 농정의 평가 속에서 점차 증산(增産)과 가격경쟁력 강화 위주에서 점진적으로 농가 소득안정(所得安定) 및 품질경쟁력 강화 쪽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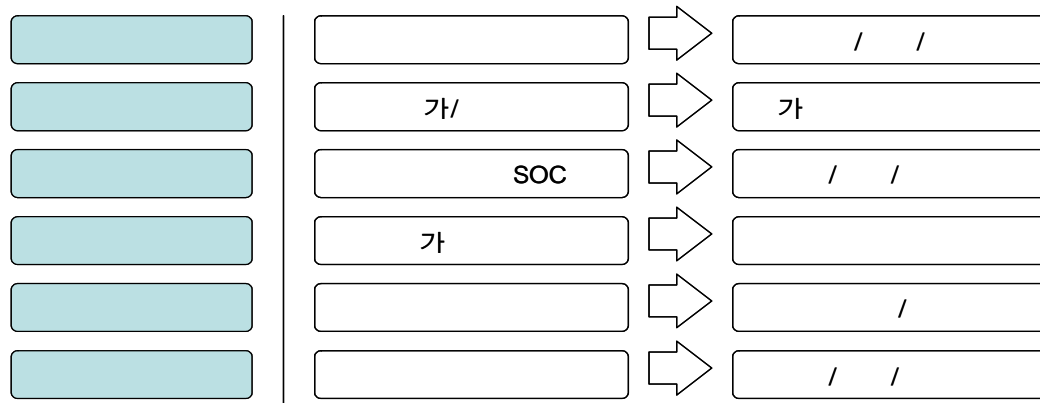
○지원방식을 평균적 지원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중앙정부는 농업정책과 사회정책을 엄격히 구분하고, 농업정책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함

○투융자의 방향은 기존 생산기반 등 SOC구축에서 소득, 복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생산중심에서 소비자 안전, 품질 중심으로 정책의 중점 이동

<그림 3> 농정패러다임의 변화



○농정 기조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시장지향적 산지유통 개선”, “친환경농업육성”, “그린투어리즘”,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농정추진이 강조되고, 지역내 농업주체간 협력과 역할분담이 요구될 것임.

## (2) 농산물 유통정책 변화

### 가. 유통정책 기본방향

○농림부는 유통의 기본방향을 “생산-유통 계열화체계 구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유통을 위한 제도개선”에 두고 있음.

○계열화 주체로 규모화, 광역화, 기업화된 공동마케팅 조직을 설정하고 이 조직을 통해 소비지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유통의 범주를 식품으로 까지 확대하여 농장에서 최종 소비자의 식탁 까지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외식산업, 식자재산업, 학교급식 등에도 산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임.

### 나. 유통정책의 주요내용

#### □산지유통주체 육성

■산지유통전문조직을 기업형 공동마케팅조직으로 발전 유도

- 독립채산제형 전문경영체제 유도
- 결속력이 강한 전업농회원제 정착지원
- 유통종합자금 통합 지원

#### □산지유통센터 지원

- APC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을 규모화
- 중소규모 APC 지원에서 대규모 거점 APC 중심으로 지원
- APC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 처리량 제고
- 지방자체단체 및 농협,민간의 APC 사업 참여 유도

#### □유통전문인력 양성

- 분야별, 대상별 마케팅 전문과정 신설 운영
- 전문교육기간 육성

####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지원

- 예냉, 저장, 선별, 수송 등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지원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보완

- 거래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
- 파렛트 사용 촉진 등을 통한 물류 효율화 적극 추진
- 유통종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리 전문성 제고

#### □농산물 물류 효율화

- 산지 파렛트화 촉진
- 도매시장 파렛트 출하 촉진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품질인증 제도
- 농식품 생산이력제(Traceability) 도입

####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체계 구축

- 계약재배, 출하사업을 품목특성 유통여건에 따라 차별화
- 품목대표조직의 자조금단체화 촉진 및 단계적 사업범위 확대



■주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시·도단위 자조금단체를 결성하여 전국단위 조직화

### (3)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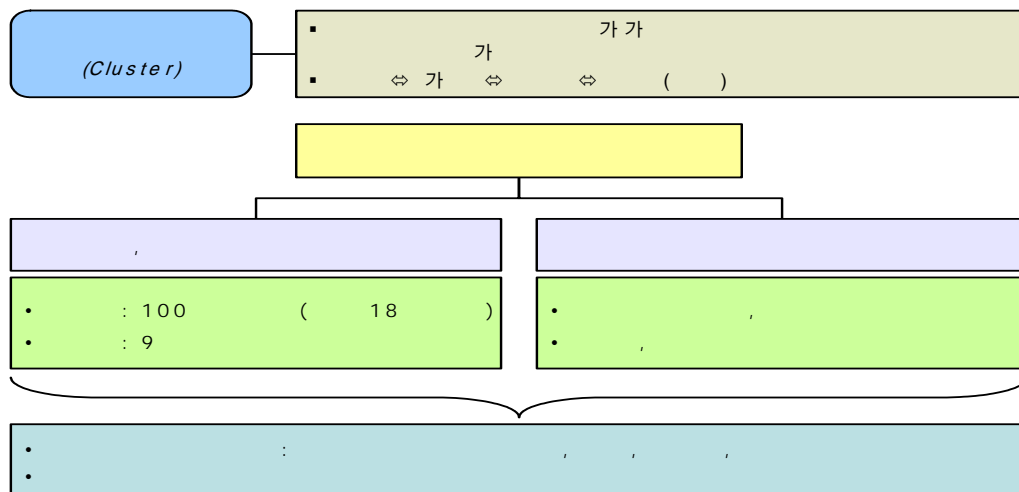
○유통정책의 흐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농업클러스터 정책은 산지유통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 지방분권체계 내에서 농업과 관련된 클러스터를 위한 혁신 요소는 품목, 유통주체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지유통과 클러스터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은 지역내 혁신요소와 관련된 모든 기술, 교육, 마케팅 등이 총망라되기 때문에 산지유통의 조기 안착 및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는 예산의 성격이 비용성 경비로 쓰일 수 있어 초기 산지유통을 광역화시키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

〈그림 4〉 농림부 지역농업클러스터 정책



#### (4)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정책

○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의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규모화와 광역화를 통

해 더 발전된 차세대 마케팅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임

○광역화된 지역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법인화를 전제로 공동마케팅 실행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지원

○2005년 안성사업연합을 포함해 9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매년 선정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그림 5> 농림부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정책

농림부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정책		농림부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 ,</li> <li>• : 2/3 ,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85%, 15%( 10, 5)</li> <li>• : (125% 110%)</li> <li>- : , , (3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 )</li> <li>-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 (1 , )</li> <li>• 04 2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100</li> <li>• : 10 ( )</li> <li>, ,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 2</li> <li>• : (30-40% 40-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3 , 3</li> <li>- :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 , FTA</li> </ul>	

## (5)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 ■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촉진

○친환경 농산물 인증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물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 ■ 다수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친환경직불제 등 정부 지원도 내실화

- 생산비 절감 기술, 다양한 친환경 농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촉진
- 단지화된 작목반, 규모화 농가를 중심으로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초생피 조성 등 실천 유도
- 인증 농가에 한정된 친환경직불제 지급대상을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일반 농가로 확대

■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하고, 지역별 농업환경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 환경·경관 관리를 강화

-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04)
-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적정 시비량 대비 분뇨 배출과다 시·군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 추진
- 지역별 농약, 화학비료, 분뇨 등의 환경 위해 정도를 나타내는 농업환경 지도 작성 등 농업환경 계측시스템을 D/B화

< 추 진 일 정 >

1단계 (2004~2005)	2단계 (2006~2008)	3단계 (2009~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제도 개편</li> <li>· 기술개발·보급체계 구축</li> <li>· 친환경축산직불제 실시</li> <li>· 농업환경 D/B 구축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직불제 다양화</li> <li>· 유기축산 본격 추진</li> <li>· 메뉴형 친환경직불제 도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10%</li> <li>· 겨울철푸른들 20만 ha</li> <li>· 규모화농가,우수 작목반의 50%가 친환경농법 실천</li> </ul>

## 2. 홍성 지역농업 여건과 과제

### 1) 홍성 지역농업 여건

#### (1) 농업 생산부문 현황

##### 가. 식량작물

○홍성군의 미곡 생산면적은 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01년 5만 7천톤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와 반대로 서류의 재배면적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3년에 다소 줄어들었으며, 서류의 생산량은 00년 이후 급증함.

<표 1>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 ha, M/T)

연도	합계		미곡		두류		서류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8	11,464	53,018	10,605	51,264	615	845	166	784	79	126
1999	11,607	58,395	10,659	56,448	654	936	168	794	126	217
2000	11,526	59,901	10,597	55,570	648	788	167	3,365	114	178
2001	11,533	62,606	10,562	57,809	655	801	177	3,754	138	242
2002	10,467	54,570	10,431	54,479	-	-	-	-	-	-
2003	10,880	54,175	10,187	50,833	496	646	165	3,166	32	69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 2004

##### 나. 원예작물

○홍성군 과채류 중 딸기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연간 5,000톤 이상 생산되는 유일한 품목으로 나타남. 딸기에 이어 오이와 토마토 순으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홍성군 전체 과실류의 재배면적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2년 사과재배면적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과실재배면적이 일시적으로 늘어남

○사과의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배의 재배면적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47.5ha에서 2003년 93.6ha로 2배가 가까이 증가

<표 2> 주요 과채류 생산량 및 재배면적

(단위 : ha, M/T)

구분 연도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딸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8	216	5,601	14	223	43	2,050	21	1,352	-	-
1999	198	4,785	24	808	28	2,018	38	3,958	-	-
2000	198	4,785	24	808	21	1,457	26	2,679	-	-
2001	23	557	19	640	5	502	15	1,546	-	-
2002	39	975	20	680	16	1,560	26	2,285	201	5,092
2003	30	777	21	525	24	1,488	24	1,721	-	-
2004	-	-	-	-	-	-	-	-	201	5,450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 2004.

<표 3> 주요 과실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M/T)

구분 연도	사과		배		복숭아		합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8	287.0	2,124	59.0	232	10.0	91	356.0	5,405
1999	258.2	4,565	47.5	690	15.0	150	320.7	5,405
2000	258.2	4,565	47.5	690	15.0	150	320.7	5,405
2001	116.0	2,213	87.0	1,504	12.0	119	215.0	3,836
2002	216.0	3,888	87.2	1,465	11.8	118	315.0	5,471
2003	113.0	2,096	93.6	1,498	9.1	91	215.7	3,625

자료 : 홍성군 통계연보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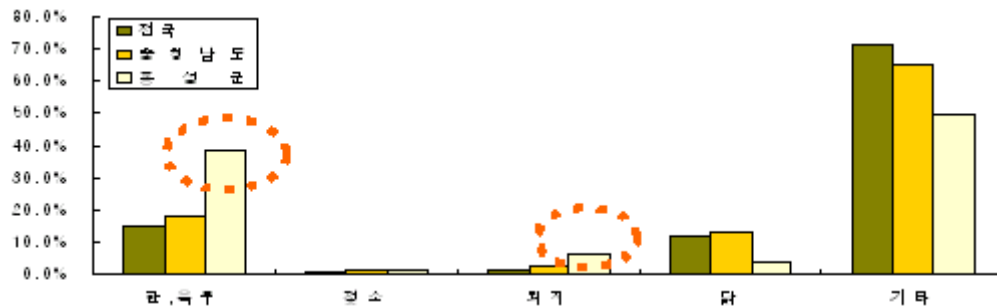
## 다. 축산

○홍성군은 전국 최고의 축산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특히 양돈산업이 발달하여 2003년 기준 한육우는 총 31,276두로 전국의 2.1%를 차지하고 양돈은 468,270두로 전국의 5.1%를 점함

○축산부류별 사육농가 비중에서도 한육우의 경우 전국 15.0%, 충남 18.29%인데 비해 홍성군은 38.4%로 사육농가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돈 사육농가비중도 전국 1.2%, 충남 2.5%, 홍성군 6.7%로 나타나 한  
육우와 양돈에 집약되어 특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음.

<그림 6> 축산분류별 사육농가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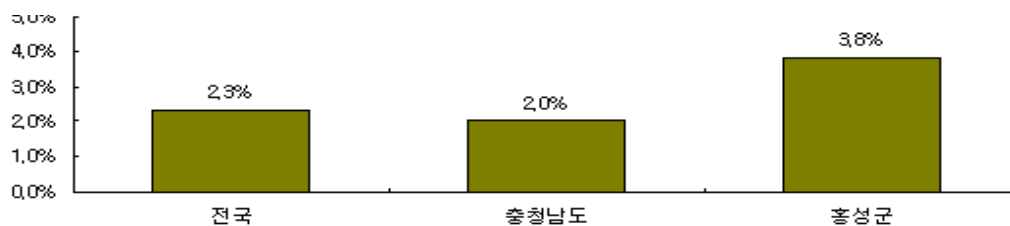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03

## 라. 친환경 농업

○홍동지역을 중심으로 일찍이 친환경 농업이 발달한 홍성군의 친환경농  
업 실천농가 비율은 3.79%로 전국 및 충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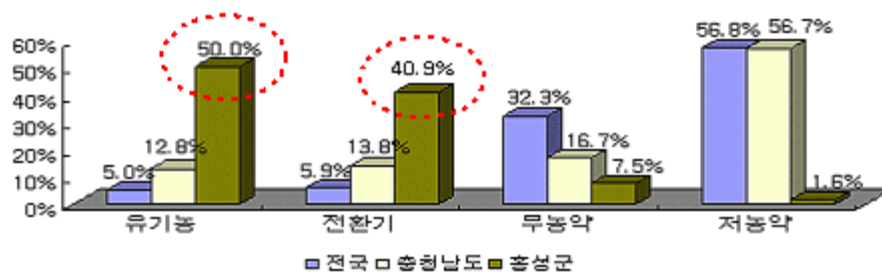
○홍성군 친환경인증 전수 중 전환기 유기농산물 이상의 인증이 전체  
인증의 90.9%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7> 농가수 대비 친환경농가비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4년 12월 말 기준

<그림 8> 인증분류별 친환경인증건수 현황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5년 4월29일 현재

## (2) 농산물 유통부문 현황

### 가. 농업의 우선투자 분야

○홍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브랜드개발 및 품질관리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 58.7%로 가장 많음.

<표 4> 홍성농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부문

응답	농업인		공무원		농협직원		전체	
산지유통/가공시설의 확충	65	31.4%	16	15.2%	20	19.0%	101	26.7%
생산기반정비	33	15.9%	6	5.7%	9	8.6%	48	12.7%
브랜드개발/품질관리강화	131	63.3%	33	31.4%	58	55.2%	222	58.7%
행정-농업인-농협의 연합사업 추진	19	9.2%	9	8.6%	21	20.0%	49	13.0%
친환경농업확대	51	24.6%	20	19.0%	22	21.0%	93	24.6%
생산량증대	6	2.9%	1	1.0%	2	1.9%	9	2.4%
정부의 경제적 소득지원	17	8.2%	9	8.6%	18	17.1%	44	11.6%
생산기술개발	24	11.6%	4	3.8%	10	9.5%	38	10.1%
관광농업의 확대와 도입	3	1.4%	13	12.4%	7	6.7%	23	6.1%
지역농업지도자의 체계적 육성	15	7.2%	1	1.0%	6	5.7%	22	5.8%
농협의 판매역량 강화	19	9.2%	8	7.6%	19	18.1%	46	12.2%
행정-농업인-농협의 신뢰관계 구축	26	12.6%	11	10.5%	16	15.2%	53	14.0%
전체	207	54.8%	66	17.5%	105	27.8%	378	100%

○각 품목별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문으로 모든 품목에서 브랜드개발 및 품질관리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확대, 축산업과 딸기는 산지유통시설과 가공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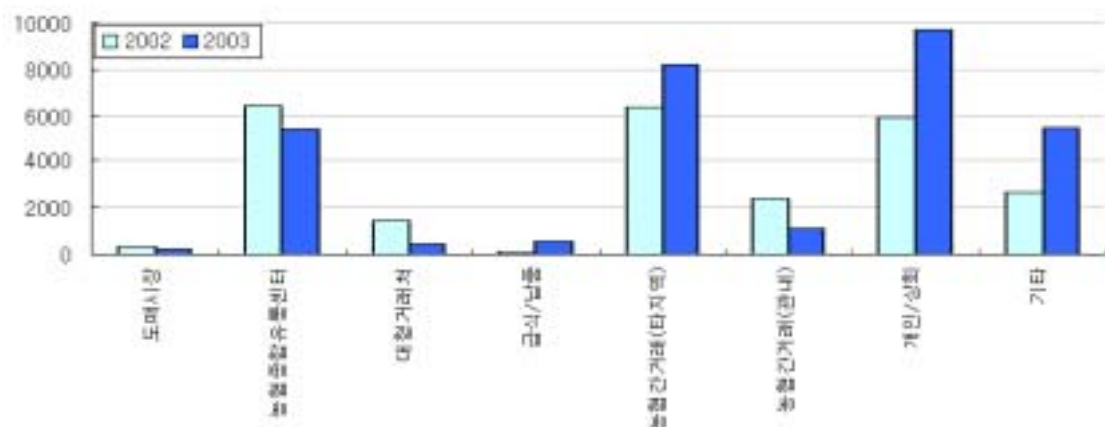
## 나. 미곡 부문

○2002년 기준으로 홍성군의 총 쌀 생산액은 1,056억원이며 이 중 홍성군 관내 농협의 쌀 판매 취급액은 254억원으로 약 23.5%를 점유하고 있음.

○홍성군 관내 농협의 출하처별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농협간거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상회와 물류센터 순으로 되어있음.

<그림 9> 관내 농협 쌀판매사업 출하시장별 금액변화

(단위 : 백만원)



자료 : 농협중앙회, 갈산 RPC, 금마 RPC 판매자료

## 다. 딸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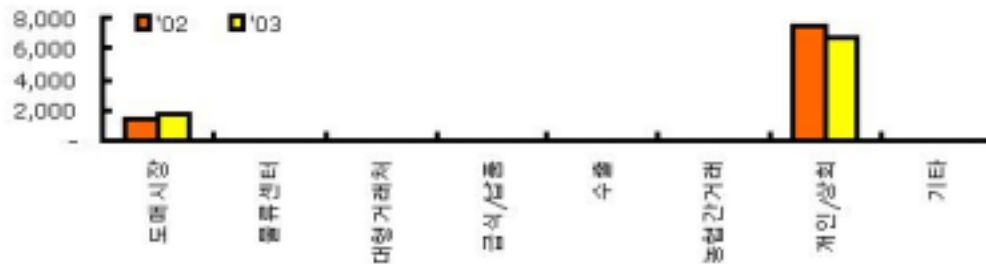
○홍성딸기의 도매시장 점유율은 0.1%~0.7%로 매우 낮으며, 평균가격을 살펴볼 때 4월~5월 사이에 타시도 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나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높지 않은 편임.

○출하처를 시장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개인/상회에 대한 출하의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물류센터나 대형거래처에 대한 출하가 전무하여 딸기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와 딸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현재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 판단됨.



<그림 10> 딸기 출하시장별 판매금액 변화



자료 : 농협중앙회

### (3) 농산물 유통인프라 현황

#### 가. 쌀 관련 유통인프라

○홍성 관내 RPC는 갈산농협과 금마농협, 민간소유인 천수만RPC 등 총 3개의 RPC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쌀의 유통·가공이 이루어짐.

○그러나 관내 RPC의 가공능력은 생산량의 41.5%인 23천톤에 불과하고 저장능력은 더욱 미미한 실정임

<표 5> 관내 미곡처리 유통시설현황

구분	시설현황('04.12.31일자기준)		
	건조능력(톤)	저장능력(톤)	가공능력(톤/연)
갈산농협 RPC	7,700	3,600	6,000
금마농협 RPC	6,525	2,800	6,000
홍성농협 DSC	800	900	
농협 소계	15,025	7,300	12,000
천수만 RPC	10,340	2,480	10,800
민간 소계	10,340	2,480	10,800
합 계	25,365	9,780	22,800

자료 : 홍성군청, 홍성군지부, 각 RPC

## 나. 일반농산물 관련 유통인프라

○홍성군 관내 일반농산물관련 유통시설은 총 65개소로 이 중 정부지원을 받은 유통시설은 총 60개, 작목반 자체적으로 설립한 곳은 5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홍성군 유통시설현황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산지 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이 집하장	개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전국	15,527	208	9,881	561	609	470	3,530	204	64
충남	1,583	28	575	90	2	9	866	11	2
홍성군	65	1	7	7	-	2	46	2	-
논산시	126	4	30	4	2	-	86	-	-
예산군	103	1	40	2	-	-	58	1	1
부여군	152	5	6	5	-	1	133	2	-
당진군	122	2	74	-	-	-	46	-	-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2

○수확후 관리 및 저장관련 유통시설인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가 각각

2개 7개로 적음. 특히, 농산물의 상품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지유통센터는 1개, 선별장은 전무하여 이에 대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보여짐.

#### 다. 친환경농업 관련 유통인프라

○현재 오리농산물 중심의 소규모 유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건조-도정-저장시설을 모두 갖춘 주체가 없으며, 각 주체간 협력도 어려워 고품질 유기농산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표 7> 친환경 유통시설현황

유통시설	운영주체	사업량	비 고
친환경벼 건조 저장시설	풀무생협	1개소	2003년 설치 연간 3,000톤 처리가능
집하 및 예냉시설	오리농산물작목회	396㎡	2002년 설치
친환경쌀도정시설	오리농산물작목회	1식	2002년 설치 시간당 2.5톤 연간 2,000톤 처리가능

## 2) 홍성농업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지역</li> <li>○ 전국 최대의 축산생산기반</li> <li>○ 농업발전에 대한 행정의 강한의지</li> <li>○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주체간 협력체계 부족</li> <li>○ 인지도가 높은 주산품목 부족</li> <li>○ 산지 상품화/브랜드/유통력 부족</li> <li>○ 농업주체의 낮은 투자여력</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유기농산물 수요증가</li> <li>○ 정부의 친환경/그린투어 지원강화</li> <li>○ 산지유통활성화에 대한 지원확대</li> <li>○ 생태 문화관광 수요증가</li> <li>○ 지방분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li> <li>○ 정부의 농업보호기능 약화</li> <li>○ 산지간 시장경쟁 격화</li> <li>○ 축산규제강화</li> <li>○ 경기침체</li> </ul>

### 3. 홍성 지역농업 발전방안

#### 1) 홍성농업 발전 비전(안)

- “친환경생태농업도시 건설로 한국농업의 未來像 창출”을 비전으로 2013년까지 한국농업의 TOP3 달성을 목표함



## 2) 비전달성을 위한 6대 핵심전략

○지역농업의 3주체인 지자체-농업인-농협의 공동기획·공동실행으로 홍성군 농업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체계의 구축 및 3주체 간 협의에 의해 도출된 농업발전계획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1 지역농업혁신체계구축
- 2 홍성군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추진
- 3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도약
- 4 고품질 쌀 생산 및 차별화
- 5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품목육성
- 6 고품질 브랜드 축산업 육성

## 3) <과제1> 지역농업 혁신체계 구축

### (1) 기본전략

○홍성군 지역농업활성화사업은 행정-농협-농가 간 공동기획·공동실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기구와 사업실행기구로 사업추진시스템을 구성·운영함

○의사결정기구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지역농업발전협의회와 발전협의회 산하 기구로써 참여주체의 전문성을 고려해 편성된 품목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홍성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품목별 세부발전과제를 수립함

○홍성농업발전을 위해 선정된 핵심전략사업은 홍성군지부와 지역농협 간 사업협력체계 속에서 실행하게 됨

### <그림 11> 사업추진시스템 구성

## (2) 핵심사업 제안

○홍성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제도 기반을 마련으로 지역농업혁신체계의 구축

○지역농업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지역농업 주체(행정-농협-농업인)간 공동기획·공동실행 체계인 지역농업활성화 추진시스템의 정례화

○홍성농업발전의 기본방향과 각종 농업지원 근거마련, 공동브랜드의 품목별 품질관리기준 등을 포괄한 조례제정

○홍성농업의 비전 및 과제, 현황 등에 대한 공유를 위한 농업주체 간 커뮤니티 구축

<그림 12> 홍성군 지역농업혁신체계구축 전략세분화



#### 4) <과제2>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 추진

##### (1) 현황과 문제점

##### 가. 지역내 농산물 브랜드 현황

○04년 현재 관내에는 6개의 공동브랜드와 지역농협과 작목반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28개의 개별브랜드가 있으며 대부분 브랜드가 상표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브랜드네이밍 형태도 지역명이나 생산자조직과 상품의 보통명사를 조합한 형태가 대부분이며 브랜드마케팅과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브랜드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관내 주요 RPC를 중심으로 게르마늄쌀과 친환경쌀 등 제품차별화를 시도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관리로 개별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으나 홍성을 대표할 브랜드파워는 갖추지 못하고 있음

<표 8> 04년 홍성군 농산물브랜드현황

	전국	충남	홍성
공동브랜드	1,206	131	6
개별브랜드	4,222	778	28
합 계	5,428	909	34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4

## 나. 상품화가 가능한 농산물 취약

### ■ 규모화가 가능한 농산물 취약

○현재 관내농협의 판매실적 중 곡류, 축산물, 딸기를 제외하고 단일품목 판매실적이 10억 이상 되는 품목이 없어 규모화가 어려운 실정임

### ■ 공동선별·공동계산조직 부재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등급화와 동일등급 내 품질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선별작업이 필요함.

○현재 홍북농협을 중심으로 딸기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동선별장이 없고, 공동선별이 어려운 딸기 특성으로 인해 공동선별은 이루어지지 않음

### ■ 농산물 품질관리체계 부재

○현재 홍성군 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매뉴얼과 조례, 품질관리위원회 등 일련의 관리체계가 없어, 각 조합별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최소한의 품질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음

## (2) 농산물 공동브랜드 “츨살이” 개발

○홍성군 농산물을 대표할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홍성군청에서 2005년 말부터 시작한 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이 2006년 1월 완료됨

○홍성 츨살이는 웰빙의 순우리말로 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직한 농산물만을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홍성군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츨’은 전통적인 한글 서체로 강조하여 전통적인 느낌을 유지, ‘살’의 green은 자연을, ‘이’의 yellow는 고향의 대지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13> 홍성 공동브랜드 「홍성 츨살이」



## (3) 핵심사업 제안

○홍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브랜드 품질관리기준설정 및 품질관리전담조직 구성 등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함

○제한된 자원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홍성군 농산물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관리해야 함

○또한 다양한 대중매체의 활용, 소비자 대면홍보 진행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이용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홍성공동브랜드의 소비자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그림 14> 홍성군 농산물 브랜드마케팅추진 전략세분화

### 5) <과제3> 홍성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

#### (1) 홍성 친환경농업의 문제점

#####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어려움

○한정된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유기농산물의 수입급증과 전국적

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증가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간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역 친환경농산물 주요 산지는 친환경 벼 수매 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등 대응책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홍성은 이에 대한 아직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임

○현재 풀무생협과 홍동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만으로는 관내 급증하는 친환경쌀 생산량을 판매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가격은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 친환경농산물 전용 유통·가공시설 투자여력 취약

○급격히 증가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처리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상품화 시설 등 친환경전용 유통·가공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11.5%, 05년)가 취약하고, 풀무생협과 홍동농협 또한 넉넉지 못한 실정임

- 현재 홍동농협은 농가들 자체건조 후 문당리 도정공장에서 도정한 후 자체 저온저장고와 자체창고에 저장하고 있음
- 풀무생협은 전용 DSC에서 건조 후 민간 도정시설을 이용해 도정한 후 수매물량의 절반가량을 야적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수매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겹쳐 추가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임.

## ■ 친환경농산물 마케팅력 부족

○문당리지역에 대한 높은 소비자 인지도와 품질 좋은 친환경 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주체의 마케팅기능이 부진하여 홍성을 대표할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를 갖추지 못하였고 판로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전략설정 목표

○홍성군을 정직한 농부가 깨끗한 땅에서 땀 흘려 생산한 최고급 유기농산물만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국내 최고의 친환경농업의 모델지역이 되고자 함

○이를 위해 유기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유기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

산측면에서 환경부화를 최소화하고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단지를 광역화시켜 품목다양화를 시도함

○또한 소비자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여 홍성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도 및 고객충성도 향상을 꾀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체계적인 공동마케팅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그림 15> 홍성군 친환경농업의 비전 및 핵심지표

자료 : 홍성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신청서

### (3) 핵심사업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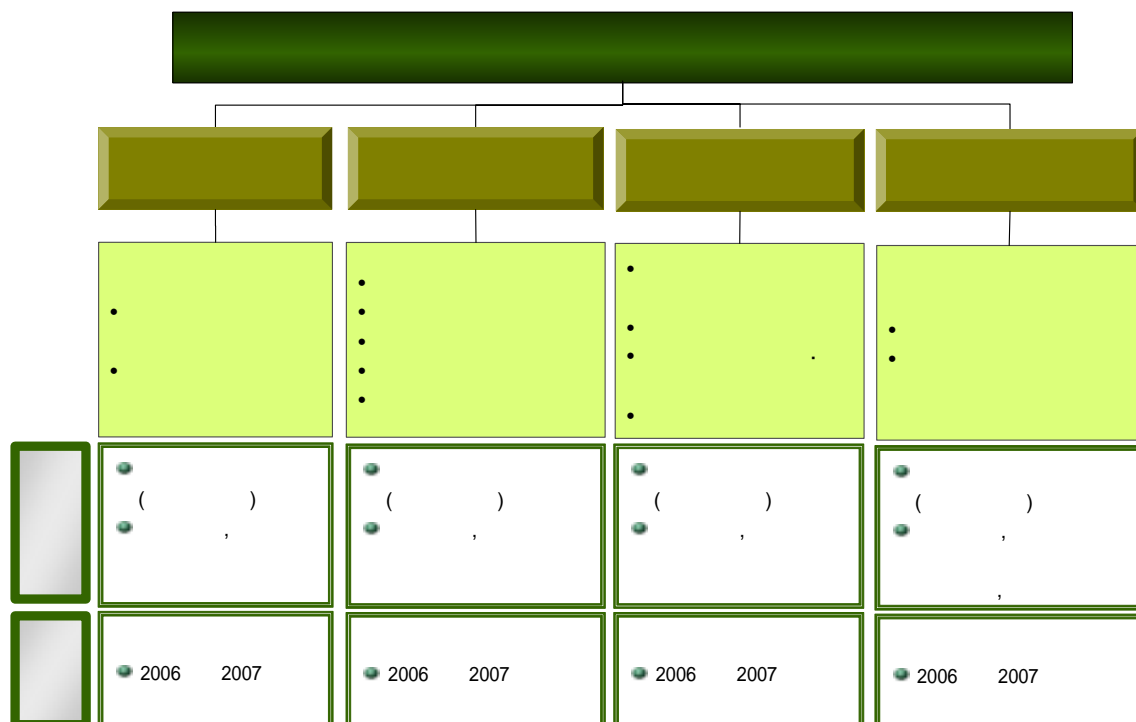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위주의 지원정책으로는 급변하고 있는 외부 환경에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써 홍성군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움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부문에 투입되는 자원을 최소로 하고, 생

산된 농산물의 판매와 부가가치극대화를 위한 유통·마케팅부문에 투자가 필요함

○소비자와의 신뢰가 중요한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홍성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와 충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그림 16> 홍성군 친환경농산물 발전을 위한 전략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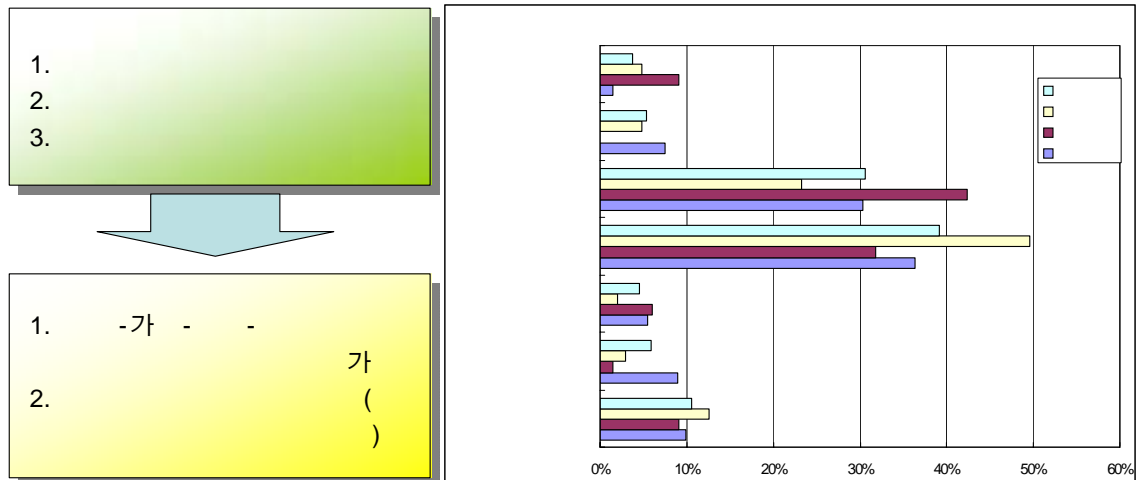


## 6) <과제4> 고품질 쌀 생산 및 차별화

### (1) 홍성 쌀 산업의 문제점

#### 가. 내부주체의 문제인식

○지역농업의 3주체는 흥성 쌀산업의 해결과제로 브랜드개발과 친환경 농업 확대,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꼽음. 이는 쌀산업 발전을 위한 브랜드 육성과 양곡관련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나. 쌀 산업 전략수립의 어려움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RPC를 통한 얼굴 있는 쌀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RPC 중심의 생산·유통 계열화를 통한 품질차별화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전략추진이 어려움

○RPC운영 조합은 지역 쌀산업의 얼굴역할을 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설 자금, 운영자금 및 인력 배치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부담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의 확장도 쉽지 않음

○RPC미운영 조합은 시설 및 자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품질 쌀의 일 관된 생산·유통시스템을 갖춘 사업을 감당할 수 없으며, 경영여건을 고려한 최소한의 사업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음

○행정은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의 농정보다는 고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농림 사업 및 도사업과 결합한 재배표준화, 시설확충 및 개선, 경영개선지원 및 홍보활동 등 전방위의 정책수단을 구사하고 있음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는 개방폭 확대에 의한 추곡수매 폐지, 시판허

용 등으로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해 지자체 및 농협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는 별도의 지원금을 유치하여 소규모 가공·판매 사업에 직접 진출

○이에 따라 지역 전체의 관점과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못하고 각 주체별 현재 내발등의 불끄기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즉 행정과 농협, 농업인이 지역의 쌀산업을 살리기 위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함.

○아울러, 일반 쌀의 고품질화 방향과 친환경 쌀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상호 연계성과 경계선이 모호하여 두가지 분야의 발전전략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다. 농협간 협력체계 미흡

○RPC 운영조합들은 홍성 쌀 판매사업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며 매년 수매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원료곡의 안정적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자라는 물량은 정부 수매곡과 공매에 의존하는 상황임

-현재 정부수매는 3개RPC와 DSC를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갈산RPC는 갈산, 구항, 광천 등. 천수만RPC는 서부, 결성, 은하, 장곡 4개지역을 원료곡 확보 권역으로 운영)

○RPC 미운영 조합들은 건조·저장시설 부족과 자금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매기능 자체가 부족하고 RPC운영조합과 연계보다는 민간 도정업자와 수탁사업 중심으로 기능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RPC 운영조합과 미운영조합간 원료곡 확보에 대한 협력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쌀의 체계적인 생산-수매-저장-도정-판매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라. 품종별·미질별 관리 부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고품질 쌀의 품종이 통일되지 않아 품종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현재 홍성관내에서는 남평, 동진1호, 일미, 일품 등의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정부수매는 남평과 동진1호에 대해 이루어지고, RPC별

로는 3개 내외의 품종에 대해 수매를 실시하고 있어, 수매-저장-가공-판매 과정에서 품종별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지역내 7개 품종(동진1호, 주남, 남평, 새추청, 일미, 일품, 추청)을 추천하고, 지역별로 2-3개 품종을 선택하여 지역명미를 육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저장-보관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품종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마. 건조·저장시설의 부족

○양곡시설 중에 가공시설은 현재 RPC 규모로도 부족함은 적지만, 건조와 저장시설은 상당부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RPC 운영조합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확충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매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RPC 미운영조합은 창고시설 외에는 마땅히 수매를 할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이 없는 상황이며 개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투자부담이 따름

○아울러 고품질 전략추진을 위해서는 타지역에 이미 확산되고 있는 저온보관시설과 완전립 생산시설에 대한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됨

○조합별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합간·지역간 유통시설 확충과 공동 활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고품질 생산시설의 투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부족함

#### 바. 지역 쌀 대표 브랜드 부재

○쌀 브랜드는 청풍명월, 청산유수, 홍섭이네 뚝심쌀, 청풍미인, 푸른들쌀 명품쌀 등으로 RPC 운영조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 공동 브랜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음

○쌀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고, 브랜드의 상표등록도 부족함. ‘청풍명월’은 충남도 공동브랜드로 광역브랜드 관리의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표 9> 홍성 쌀 브랜드 현황

구 분	갈산RPC	금마RPC	천수만RPC	기 타
자체(농협)	청산유수 홍설이네 독심쌀 청풍미인	푸른들쌀 명품쌀	천수만쌀 천수만오존쌀 고칼슘영양쌀	고향쌀(광천농협)
도브랜드	청풍명월	-	-	-

#### 사. 고품질 생산 관리체계 부족

○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조성 및 계약재배 추진, 생산단지의 재배지 관리와 재배방법, 수확-건조-저장-가공-판매 등에 관한 일관된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함

○ RPC 운영조합을 중심으로 명미단지 조성 및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전체 차원에서 추진이 부족하고 생산-재배와 수확 이후의 품질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주체간 합의가 부족한 상황임

#### 아. 홍보 마케팅에 대한 행정지원 부족

○ 홍성 쌀의 홍보 마케팅 관련예산은 브랜드 개발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지원예산은 편성되지 못한 상황임

○ 최근 산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타지역이 농산물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관련 사업에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RPC 운영조합 등 마케팅 주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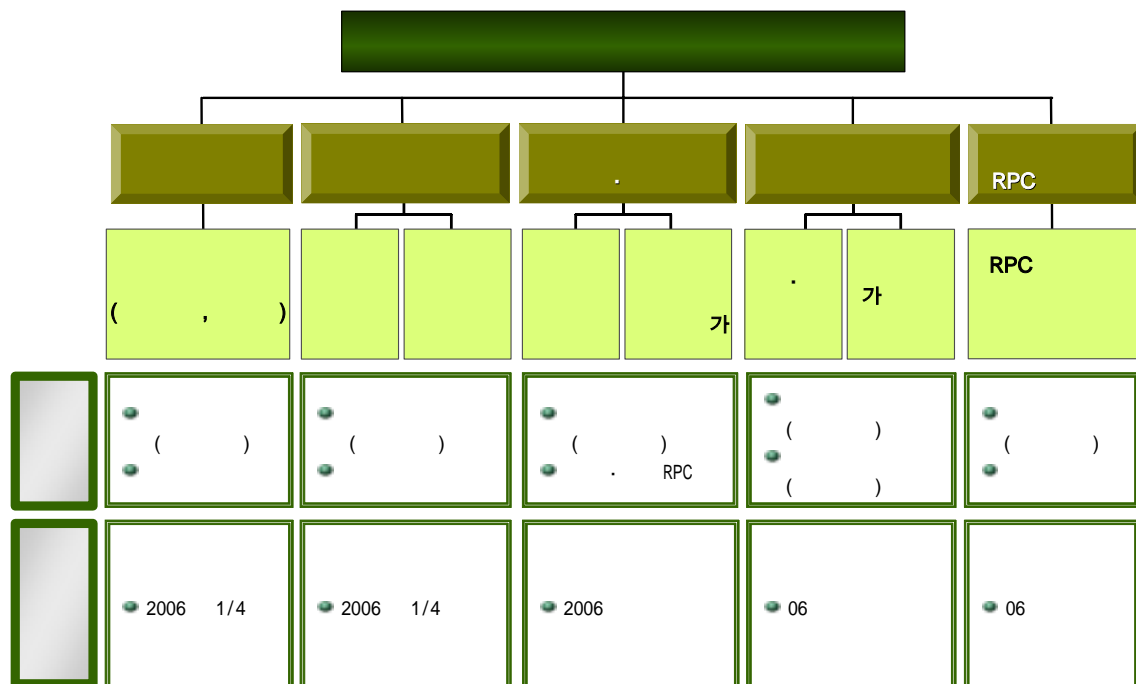
### (2) 핵심사업의 제안

○ 수입쌀의 시판허용 및 정부의 기능축소, 국내 쌀의 수급과잉 등 국내 쌀 산업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RPC 운영조합은 개별단위로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홍성군 쌀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임

○쌀 산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나 고급화-시설현대화-홍보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관내 쌀 산업의 재편과 차별화전략, 주체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임

<그림 17> 고품질 쌀 생산 및 차별화를 위한 전략과제 세분화



## 7) <과제5>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품목 육성

### (1) 주요품목의 특화계수

○홍성군의 주요 품목별 특화계수는 축산의 돼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강, 딸기, 친환경농산물, 한육우의 순으로 나타남

<표 10> 홍성군의 주요 품목별 특화계수(03년 기준)

(단위: ha, 마리)

구분		전국	홍성	특화계수
두류	콩	80,447	420	0.6
	팥	6,876	58	1.0
	녹두	1,557	15	1.1
서류	고구마	14,161	78	0.6
	감자	20,219	87	0.5
과채류	딸기	7,503	201	3.0
	토마토	4,102	24	0.7
	참외	7,731	21	0.3
	오이	6,648	24	0.4
	무	35,051	196	0.6
근채류	고추	63,150	457	0.8
엽채류	배추	47,686	504	1.2
조미채소	파	20,039	189	1.1
	생강	1,710	54	3.6
	마늘	33,140	186	0.6
	참깨	35,036	191	0.6
특용작물	들깨	28,703	262	1.0
	땅콩	4,079	28	0.8
과실류	사과	26,398	113	0.5
	배	24,061	94	0.4
축산	한육우	1,480,291	31,276	2.4
	젖소	518,645	6,206	1.3
	돼지	9,230,677	468,270	5.7
	닭	99,018,605	1,358,166	1.5
	사슴	144,926	2,311	1.8
	토끼	376,217	1,582	0.5
	오리	9,017,280	65,247	0.8
	꿀벌	1,871,648	6,987	0.4
기타	친환경농산물	29,519	766	2.9

자료 : kosis 2003, 홍성통계연보 2004, 홍성군청

## (2) 홍성 딸기 산업의 현황

○홍성딸기의 재배면적은 홍북면 85ha, 은하면 40ha, 금마면 30ha 등 총 201ha로 연도별 큰 변화 없으나, 딸기 생산량은 2004년에는 2002년 대비 약 400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 11> 홍성군딸기생산현황

(단위 : ha, 톤)

연 도	면 적	생산량
2002	201.2	5,092
2004	201.0	5,450

자료 : 홍성군청

○2003년 현재 딸기 취급액은 홍북농협이 5,04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은하와 금마농협이 각각 1,499백만원 1,339백만원 수준임

○농협 계통출하는 대부분 공동출하 수탁판매형태이며 수도권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음

### <표 12> 농협별 판매금액 및 물량

(단위 : 돈, 백만원)

항 목	2003			
	금 액	비 중	물 량	비 중
홍북농협	5,048	59.6%	1,450	60.7%
은하농협	1,499	17.7%	445	18.6%
금마농협	1,339	15.8%	383	16.0%
홍성농협	307	3.6%	73	3.1%
구항농협	255	3.0%	33	1.4%
결성농협	25	0.3%	6	0.3%
합 계	8,474	100.0%	2,390	100.0%

주 : 조합별 기표내역을 근거로 하여 삼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특히 물량의 경우 기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였음

### (3) 홍성 딸기 연합판매사업 추진현황

#### 가. 참여농가(협약체결 기준)

○9개 작목반 89농가

○총 약정 물량 531톤 (5.9톤/농가)

#### 나. 공동계산 사업체개

- 농가별 개별선별 후 공동기준에 의한 검품 (집하기능 부재로 검품기능 부족)
- 출하권 위임을 통한 마케팅주체 일원화로 전략마케팅 가능
- 거래처 및 거래시기(10일단위)에 무관한 공동계산 방식 도입
- 농협의 수수료는 연합판매 약정수수료 7% - 출하차별 수수료

항 목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공동계산범위	○개별작목반 / 전체참여작목반	○연합작목회(9개작목반 89농가)
브랜드	○작목반별 / 단일 공동	○연합사업브랜드 용봉산양심팔기 사용
선별기준	○작목반별 / 동일선별기준적용	○선별 5등급(왕특,특,상,중,기형과) ○출하 4등급 (특,상,중,기형과)
출하주	○작목반 / 농협(연합단)	○홍북농협
판매권	○제권한의 농협위임여부	○홍북농협에 출하위임
작업관리책임 및 기능	○입출고/검품/작업장관리	○자율검사원(작목반장 중 임원이 아닌경우, 당연직 자율검사원, 작목반 10명단위에 자율검사원 1명)
선별팀구성	○선별작업팀 구성 및 관리	○농가단위 선별(선별기준 제공)
정산기간	○00일 단위	○10일 단위
농협수수료	○판매금액의 0%	○농협수수료 = 7% - 출하차별 수수료
연합회기금	○시설투자, 교육, 리콜을 위한 기금조성	○판매금액의 0.1%(유통손실보전금) ○작목반기금 0.5%
협약서	○농협/작목반/농가 간 협약체결 여부	○농협-연합회-농가간 협약 체결
비상계획수립	○거래처 긴급발주 대응방안/반품 및 리콜 대응방안	○출하차별간 물량조절로 긴급발주 조절 ○반품 및 리콜 출하주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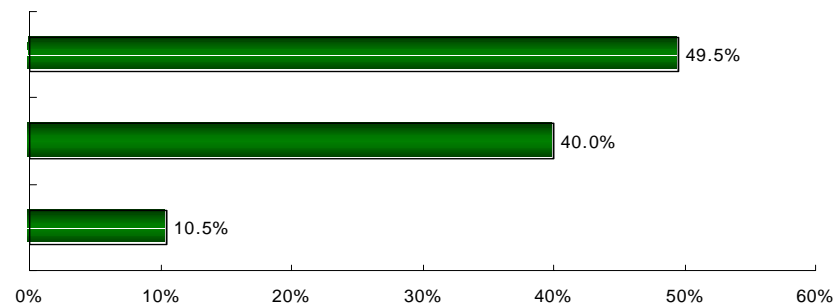
#### 다. 공동계산 작업체계 점검결과

항 목	체크사항	점검사항
생산및재배	○정식시기및면적조정 ○품종통일	○정식시기 및 면적에 대한 조정 없음 ○품종 대부분 육보로 통일(99%) (육보,매향,타마,찰리)
수확및집하	○수확시 1차선별 실시로 특품 비율제고 ○선별장까지 농가수송 여부	○1차검품을 통하여 비품혼입을 최소화 ○작목반별 집하 후 순회수집
입고및검품	○검품요원(작업관리 책임자) 운영여부 -당일 입·출고 물량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출하주 입회하에 계량 및 검품 ○재작업요구 및 반송 기준	○공동선별 미실시로 입고는 해당 없음 ○농협 직원의 검품 통해 출하
선별	○선별작업 기준 준수 ○선별작업단 교육 등	○개별농가단위 선별
포장	○포장방식	○2kg박스, 4kg박스, 스티로폼
출하	○물류효율화 노력정도 ○운송차량 운영 형태 ○기타 출하시 특이사항	○상차시 작목반장이 검품 ○상차시간이 촉박하고 출하불가상품에 대한 엄격한 선정이 어려움
대금정산	○정산요원의 별도 운영여부 ○정산 소요 기간	○별도 운영 없음 (판매담당자가 대금정산 병행)
비품처리	○농가개별/농협 ○비품과다농가페널티부여	○농가단위로 처리

○연합판매를 통해 조합 총 취급물량의 29.8%를 처리하였고 kg당 농가 수취가도 287원 향상, 총 531톤 취급시 약 1억 5천 2백만원의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하처별로는 기존 개인상회위주에서 탈피하여 도매시장 40.0%, 농협 종합유통센터에 49.5%를 출하함으로써 체질을 완전히 개선

<그림 18> 딸기 연합판매사업단 출하처별 판매물량  
(단위 : %)



○연합판매사업에 참여하는 작목반과 비참여 작목반간 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홍성딸기의 전체적인 품위향상 또한 연합사업의 큰 성과라 평가됨